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39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6월 24일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雨 — 하늘이 뚫렸다

기상관측 이래 하루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한 17일 광주시 서구 양동 복개상가 인근 광주천의 수위가 높아져 범람 위기에 놓여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에 '괴물 폭우'…도로·주택 침수되고 하천 범람

기상관측 이래 광주 7월 하루 최고 강수량…200㎜ 더 올 듯

광주·전남에 17일 오전부터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산사태 경보가 잇따라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관련기사 3·6면〉

곳곳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와 상가가 침수된데 이어 도로·지하철 통행이 제한되는 등 도시 셧다운을 방불케하는 혼란 상황이 빚어졌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광주와 곡성에는 하룻동안 366㎜의 비가 쏟아졌다. 일 강수량은 담양 봉산면 331.5㎜, 나주시 289㎜, 함평 월야 258.5㎜, 화순 백아면 238.5㎜, 장성 204.5㎜ 등을 기록했다. 나주에서는 시간당 92㎜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시간당 강수량은 광주 남구 80㎜, 곡성 옥과 70.5㎜, 장성 65.5㎜, 함평 월야 65㎜, 구례 성삼재 57.5㎜ 등으로 나타났다.

오후 6시 기준 광주·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광양·순천·무안·함평·영광·신안·흑산도,홍도에는 호우경보가, 여수·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완도·영암·목포·진도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됐다.

광주에서는 인명 구조 3건, 도로 침수 247건, 건물 침수 151건, 도로 장애 14건, 기타 122건 등 모두 440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전남에서도 인명 구조 9건, 주택 침수 157건, 도로 장애 129건 등 모두 3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북구에서는 문흥성당 앞 도로, 오치 쌍굴다리, 죽림지하차도, 하천변, 망월동 징검다리 등 차량이 통제됐다.

서구 유덕동과 서창동 경로당에서 20명이 사전대피했고 둔치주자창, 하천변산책로, 하부도로 등이 통제됐다.

하천 수위가 불어나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오후 5시 기준 담양군 삼지교, 광주시 극락교, 광주시 풍영정천2교에는 홍수주의보가, 광주시 용산교, 광주시 유촌교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졌다. 같은 시각 하천 범람 우려로 건국, 석곡, 신안, 임동 인근, 소태천, 증심사천, 광주천 주민들을 대피 안내를 받았다. 장등천과 석곡천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이 동초등학교로 대피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이날 광주와 전남 전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낙뢰로 인한 정전 피해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광주공고 일대가 정전돼 학생들이 전원 조기 귀가 조처됐고, 담양 일대에도 전력공급이 끊겼다.

광주공항에서는 6편의 비행기가 결항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후 4시 14분을 기점으로 호남선 광주송정에서 목포역을 오가는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전남도에서는 오후 3시 기준 국립공원 5개소, 여객선 11항로 15척, 하상도로 6곳 등이 통제됐으며 50세대 63명이 대피했다.

비는 주말까지 이어져 오는 19일까지 최대 200㎜ 더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까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과 남쪽 해상에서 유입되는 수증기 영향으로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다"고 밝혔다.

18일부터 19일까지 광주·전남에는 100~200㎜가 내리고, 전남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300㎜ 이상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18일 새벽부터 19일 오전까지는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50~80㎜, 그외 광주·전남에는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李 대통령 "5·18 정신 헌법 수록 개헌 나서야"

제헌절 맞아 취임 후 첫 언급
"헌법 현실 맞게 새롭게 정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언급했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하면서 광주·전남 현안 중 하나인 5·18의 왜곡을 막고 정신을 기리는 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 정신임을 주창해 왔다.

그동안 과거 정권에서도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쓰여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의 '서문'(序文)이다.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최상위 규범을 함축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창설이나 국가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면 '12·3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일부 극우 세력에 의해 광주에서 자행됐던 '5·18 비하와 왜곡'은 더욱 논리적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박스쿨' 등의 역사 부정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개헌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고, 대한 국민은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 'K 성공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고 평가했다.

또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노후 공업지역 지속가능 산업공간으로 재편

광주시가 활력을 잃은 광주 공업지역을 지속가능 산업공간으로 재편한다. 〈관련기사 5면〉

노후한 광주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을 공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한다는 것이다.

17일 광주시는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본계획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가 마련한 공업단지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이다.

광주 16개 산업단지 면적에서 22.1㎢를 제외한 4.2㎢가 사업 대상이다. 제외된 면적은 산단법, 문화산단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별도 규제를 받는다. 구체적 사업 대상지는 송암·평동산단 일대, 매월유통단지, KT&G 광주공장,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일대를 비롯해 송암TG(톨게이트) 주변 등 7곳이다.

광주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공공과 민간이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공업지역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규제완화 특례 등의 각종 지원과 사업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도시 환경에 맞춰 공업지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최종안은 아니지만 광주시가 총력을 쏟고 있는 첨단산업과 융합하는 산업을 육성해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용 회장 무죄 사법 족쇄 풀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